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척자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 땅이 너럭해 보이지 않아도, 주변 국가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불평하기보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출발하는 개척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 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569장) 다 같 이

1. 선한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 기도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감사예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338-146
☎ 374-6161~3, 374-6168(FAX) www.sjch.kr

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고후 5:17 인 도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 송 시온의 영광이 (550장) 다 갈 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이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 도 공동기도(혹은 가족 중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흠뻑 젖어 지내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온전한 삶, 은혜와 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수 17:14~15 인 도 자

¹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 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¹⁵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예브 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설 교 『믿음으로 개척하라』 인 도 자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주 자주 불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삶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살펴봄으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지하여 75세의 나이에 어려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많은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을 분배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 지파가 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의를 제기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파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어느 지파보다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땅을 분배하는데 있어서는 불공평하게 작은 지분을 주냐고 불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항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 누구도 땅의 지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으며, 오히려 너희 요셉 지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주어진 축복의 나머지 분복은 개척을 통해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넉넉히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병거를 갖추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요셉 지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떠났던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2. 믿음의 개척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조건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근시안적인 눈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물려받은 유산이 적다고 탓